



순창군은 최근 사조그룹이 전통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에 120억을 투자하기로 확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순창군 전통발효산업 '탄력'

사조그룹, 기업문화 연수원 건립·발효 슬로시티 조성 투자 확정

순창을 확 바꿀 초대형 프로젝트인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사업이 민간투자 참여가 확정되면서 성공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군은 최근 사조그룹이 전통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에 120억을 투자하기로 확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순창군은 지난해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로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 또 2020년까지 총사업 630억원을 투자해 기존 전통고추장 민속마을 등과 연계해 발효테라피 센터, 세계발효마을 농장, 발효미생물종자원, 전통기업문화연수원, 발효슬로시티파크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중 전통기업문화연수원과 발효슬로시티파크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최근 사조그룹에서 투자 계획을 확정된 것. 사조그룹이 투자하는

기업문화 연수원은 전통문화의 대를 잇는 연속성과 지속성을 위해 기업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60억을 투자하며 전국 전통식품기업 등이 이용하게 된다. 발효슬로시티파크는 기업과 관광객 증가에 따른 정주여건과 관광객 수용 시설로 기업 입주형 주거단지 16채와 펜션형 한옥콘도가 들어선다. 사조그룹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20억원을 투자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 계획 발표로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조성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군은 민간투자시설 사업 이외에도 공공투자시설인 발효테라피센터, 세계발효마을농장건립, 발효미생물종자원 등 관련 예산 확보에 집중할 계획

이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사조산업의 투자 확정으로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순창의 100년 먹거리를 확보할 대형 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이 추진하는 한국전통발효문화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생산, 소비 문화, 관광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 전체산업구조를 바꾸고 지역농민에서 서비스산업 종사자까지 지역에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획기적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 육성하고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도입한 제도다. /순창=이양형 기자

고창군 여름철 감염병 예방 홍보

건강수칙·응급조치법 등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 하고 여름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방제활동과, 올바른 손씻기 홍보, 폭염대비 건강수칙 및 온열질환 응급조치법 등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식품패매 감염병 예방은 철저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와 합

계 안전한 음식물 섭취가 중요한 만큼 음식물은 반드시 끓여먹거나 익혀먹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또한 읍·면 일선 방제현장을 직접 점검하여 집주변 모기유충 서식지 제거, 모기장 사용 및 야외 활동 시 긴 옷 착용 등 생활 속 행동수칙을 홍보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방제활동을 전개해 주민들이 안

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에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령자(독거노인 등), 야외근로자 및 만성질환자는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보건소에서는 군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은 복숭아순나방 2차 부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복숭아 등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예찰 및 적기 방제를 위한 현장 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임실군, 복숭아순나방 적기방제 현장 지도

"성페르몬 이용한 교미교란제 등 병행시 효과 좋아"

임실군은 복숭아순나방 2차 부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복숭아 등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예찰 및 적기 방제를 위한 현장 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복숭아순나방은 노숙유충으로 거친 껍질 틈이나 과수원에 버려진 봉지 등에 고치를 짓고 월동에 들어가 연간 4~5회 발생하며, 성충은 과수의 싹과 잎 뒷면에 알을 낳고 부화한 유충은 새순과 과실속을 뚫고 들어가 조직을 갉아 먹으며 과실 부패 및 낙과피해를 유발한다. 특히, 어린 유충의 싹초에 피해를 발생시켜 원하는 수형과 수세 유지에

어려움을 주고 예찰 및 적기 방제가 미흡할 경우 농가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발생 세대수가 많고 세대가 중복돼 방제가 어려움이 있으나 피해를 입은 싹초 선단부가 말라 죽거나 배설물을 배출하므로 해충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예찰 트랩과 국립원에 특자과화원에서 개발한 유효적산온도 활용해 방제적기를 확인하는 것이 방제효율을 높인다. 군 농기센터는 과원에 설치한 예찰 트랩을 1주 간격으로 조사해 성충이 30마리 이상 관찰된 후 7~10일 지난 시기가 지난 3월부터 일평균온도에서

8.1℃를 뺀 온도를 누적해 적산온도가 214, 660, 1,380, 1,950℃가 되는 시기가 복숭아순나방을 효율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성페르몬을 이용한 교미교란제 등을 병행 활용하면 더욱 효율적인 해충 방제를 기대할 수 있다"며 "복숭아순나방 정밀 예찰 및 적기 방제를 위한 현장 지도 활동을 강화해 농가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종 병해충 예찰과 방제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소득작목팀(063-640-2792~3)이나, 지역 농업인상담소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청 여자유도부 선전

전국대회서 임정수 은·김은정, 황희정 동메달 획득

고창군청 여자유도부 소속 선수들이 탁월한 기량과 체계적 훈련으로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고창군청 여자유도부 소속 선수들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청주대학교에서 열린 '제9회 청풍기 전국 유도대회'에 출전해 여자 일반부 개인전 경기에서 임정수(+78kg) 선수가 은메달을, 김은정(-70kg)·황희정(-63kg) 선수가 동메달을, 단체전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하면서 고창군은 물론 전라북도 유도부의 위상을 전국에 알렸다. 특히 임정수 선수는 이번 대회에 앞서 올 4월 경남 사천에서 열린 전국 실업유도 최강전에서 금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 고창군청 여자유도부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우수한 선수 2명을 영입해 전력을 보강하는 등 선수단 구성에 내실을 기하고 전지훈련 및 도내 순회훈련 등 체계적 훈련과 팀워크로 각종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홍기문 경기지도자는 "선수들이 워낙 성실하고 의욕도 높아 힘든 훈련도 잘 이겨내며 기량을 키워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 훈련으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고창군의 위상을 더욱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09년 직장운동 경기부 유도 실업팀을 창단해 현재 경기지도자 1명, 선수 6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전국 실업유도 최강전 개인전 1위 1회, 단체전 2위 1회 입상하는 등 좋은 성적으로 선전하고

남원 양파 올해 첫 대만 수출 기념행사

공선출하회 회원 등 참석

남원시 주요 소득 작목종 하나인 "남원 양파"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1일 남원농협 선별장(육묘장)에서 48톤(2,400㎏/20kg)을 공동선별하여 이환주 남원시장을 비롯한 양파공선출하회장, 남원농협장, 남원시조합공동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만으로 첫 수출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번 양파 대만 수출은 2014년에 처음으로 남원농협 양파공선출하회(회장 김태곤)를 조직하여 남원 사마면에 위치한 남원농협 육묘장에 최신식 양파선별기로 도입 공동선별을 통해 국내 대형유통거래처 및 도매시장 납품과 NH무역을 통한 대만 타이베이 수출 등 국내외에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양파공선출하회는 남원시 이백, 덕



과, 보절면 등 재배농가 67농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21ha에서 연간 1,300여 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국내에 400톤을 납품할 예정이며 대만으로는 900여톤을 수출할 계획에 있다. 남원시는 양파를 비롯한 파프리카, 배, 포도, 멜론 등 농산물 수출확대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산농산물 수출물류비 3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시행

순창군이 여성이 행복한 순창 만들기 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원에서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사업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은 지난 20일부터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사업은 사춘기에 접어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1:1 건강상담 서비스와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만 12세 여자(2003년 및 2004년 출생자)이다. 초경을 전후한 여성청소년기는 건강생활습관 형성과 미래여성건강 보호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군은 이사업이 여성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돕고, 상담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여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도 6개월 간격으로 2차 접종을 실시해 자궁경부암을 효과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암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병률이 높고,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3,300여명이 발병하고 연간 900여명이 사망할 정도로 질병부담이 높은 암이나 예방접종



으로 70% 발병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여성암이다. 관내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전국 국가예방접종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정영근 순창군 보건의료원장은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을 통해 여성 청소년들의 질병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고,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의학적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탁 의료기관 조치는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http://nip.adc.go.kr>)에서 가능하며 예방접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전화 063-650-5262, 5243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형 기자

문화특구



풍산면, 안동풍산읍과 동서교류협약

전북도 순창군 풍산면과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이 최근 17일 안동시 풍산읍민 한마당체육대회 개최사에서 동서교류 협약을 정식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재호 풍산면장을 비롯한 지역 단체장 이상 등 40여명이 안동시 풍산읍민 한마당 체육대회를 방문해 체결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권영세 안동시장,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 임영인 재경풍산읍민항우회장 등 주된 2000여명이 참석해 향후 양 지역의 상생발전을 기원했다. 이 교류는 양 지역이 풍산(豊山)이란 동일 명칭을 갖는 인연에 착안한 임재호 풍산면장의 제안으로 김태동 읍장의 풍산읍민 한마당체육대회 초청으로 성사되었다. 양호장간의 상호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동반자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내실 있는 동서교류를 위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공유 활용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주민의 이익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순창=이양형 기자

임실군, 풍수해보험 현장간담회

임실군은 풍수에 보험사업의 홍보 및 가입촉진 독려를 위해 "풍수해보험 현장간담회"를 21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장, 지역주민 및 읍·면 풍수에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홍보하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군은 매년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재해에 취약한 온실,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보험금 기부담의 60%를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 지난해 8월 관촌면 김 모씨의 경우 온실 6동(2,480㎡)에 대해 군의 지원을 받아 개인부담액 62만 6천원을 납부하고 풍수해보험을 가입했다. 그런데 같은 해 11월 대설 피해로 온실 3동이 전파되는 등 1천 8백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으나 풍수해보험으로 복구비 포함 2억 7백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시설하우스 복구에 큰 도움을 받았다. 풍수해보험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안전관리과(640-2644)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과수분야까지 ICT사업 추진

남원시에서는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시설을 운용하여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전년도부터 시설원예에 ICT를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과수분야까지 접목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설원예 ICT는 자동화온실과 과수시설에 온·습도 등의 최적 환경유지를 위한 첨단 센싱, 모니터링, CCTV, 제어 등의 ICT융합 장비를 지원하여 작물의 생육환경을 모바일·PC를 통해 제어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존에는 시설하우스 내에서도 온도·습도 측정이 어렵고 정확하지 않아 작물 생육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자동화온실에 ICT를 접목 후에는 언제 어디서든 온실의 생육상태를 점검 및 작동을 통해 편리하면서도 수확시기를 앞당기고 수확량도 10%정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남원시에서는 시설원예 및 과수분야에 ICT 첨단기술과 스마트팜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남원농업의 첨단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예산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